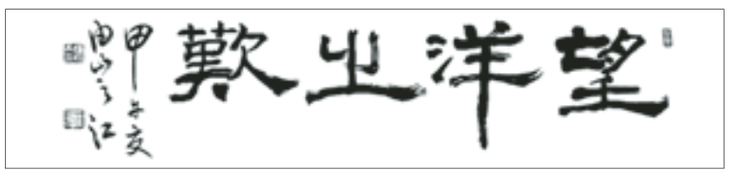
■ 고사성어 ⑫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약력-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망양지탄(望洋之歎)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는 뜻. 곧 ①남의 위대함에 감탄하고, 나의 미흡함을 부끄러워함의 비유. ②제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는 탄식.

먼 옛날 황하 중류의 맹진(孟津 : 하남성 내)에 하백(河伯)이라는 하신(河神)이 있었다. 어느날 아침, 그는 금빛 찬란히 빛나는 강물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다.

"이런 큰 강은 달리 또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늙은 자라였다. "그럼, 황하보다 더 큰 물이 있단 말인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 뜨는 쪽에 북해(北海)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강이 사시장철 그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그 넓이는 실로 황하의 몇 갑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큰 강이 있을까? 어쨌든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겠네."

황하 중류의 맹진을 떠나 본 적이 없는 하백은 늙은 자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가을이 오자 황하는 연일 쏟아지는 비로 몇 갑절이나 넓어졌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하백은 문득 지난날 늙은 자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에 강 하류로 내려가 북해를 한번 보기로 했다. 하백이 북해에 이르자 그곳의 해신(海神)인 약(若)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잘 왔소 진심으로 환영하오"

북해의 해신이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자 파도는 가라앉고 눈앞에 거울 같은 바다가 펼쳐졌다. '세상에는 황하 말고도 이처럼 큰 강이 있었단 말인가…'

하백은 이제까지 세상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심히 부끄러웠다.

"나는 북해가 크다는 말을 듣고도 이제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단견(短見)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해의 신은 웃으며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井中之蛙]'였구려. 대해(大海)를 모르면 그대는 식견이 낮은 신으로 끝나 버려 사물의 도리도 모를 뻔했소 그러나 이제 그대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오"

만사휴의(萬事休矣)

모든 일이 끝장났다(가망 없다)는 뜻으로, 어떻게 달리 해볼 도리가 없다는 말.

당나라가 망하고 송(宋: 北宋, 960-1127)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53년 동안에 중원에는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다섯 왕조가 일어났다가 쓰러지곤 했는데 이 시대를 오대[五代 : 후오대(後五代)의 준말]라 일컫는다.

또당시 중원을 벗어난 각지방에는 전촉(前蜀)·오(吳)·남한(南漢)·형남(荊南)·오월(吳越)·초(楚)·민(閩)·남당(南唐)·후촉(後蜀)·북한(北漢)등 열나라가 있었는데 역사가는 이를 오대십국(五代十國)이라 일컫고 있다. 이들 열 나라 중에는 형남과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도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인 고종회(高從誨)는 아들 고보욱(高保勗)을 분별 없이 귀여워했다. 그래서 고보욱은 남이 아무리 노한 눈으로 쏘아보아도 싱글벙글 웃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일이 끝장났다[萬事休矣].' 과연 고보욱의 대(代)에 이르러 형남은 멸망하고 말았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톨스토이의 악처

레프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임과 동시에 문명비평가·사상가로서도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작품'전쟁과 평화(Voina i mir1864~1869)',『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 1873~1876)』등은 세계의 지식인들이 즐겨 읽었던 불후의 명작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나온 무렵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무상(無常)에 대해서 심한 정신적 동요를 일으켜, 과학·철학·예술 등에서 그 해답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침내 종교에 의탁하였다. 이때가 그의 전성기여서 새로운 관점에서 많은 작품을 냈다.

그의 사상은 타락한 그리스도교를 배제하고 투철한 원시 그리스도교에 복귀하여 간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자기완성을 신조로 하여 사랑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1885년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여 이 문제로 부인과 충돌 그 후 그의 일체의 저작권은 부인이 관리하였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령부정파교도(聖靈否定派敎徒)와 친교가 있었으며 4,000명에 달하는 이교도들을 미국에 이주시키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부활(Voskresenie, 1899)'이다. "부활"에서 동방 정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1901년 종무원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작품과 논설을 발표하였다.

톨스토이는 만년에 종교에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였으며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가 하면, 성욕을 부정하고 순결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썼을 때부터 부인 소피아와의 사이가 험악하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사상의 변화가 소피아에게는 배신자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남편의 소설을 정서(淨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남편이 문호로서 명성을 떨치는 것을 기뻐하였던 소피아는 남편이 소설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톨스토이가 62세경부터 변하였고 소피아는 50세경부터 히스테리증세를 보였다. 어쨌든 몇 차례 가출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1910년 10월 29일 이른 아침 장녀와 주치의를 데리고 집을 떠나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으나 도중에서 병을 얻어 아스타포보(현 톨스토이역)의 역장 관사에서 사망하였다. 1910년 11월 20일 82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 대문호로서는 비참한 죽음이었다. 소위 '세계의 3대 악처'라는 말이 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티페, 둘째는 모차르트의 처 콘스탄체, 셋째는 톨스토이의 처 소피아를 들고 있다.

소크라테스(BC 470~BC 399)의 처 크산티페는 대표적 악처로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구정물을 퍼부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모차르트(1756~1791)의 처 콘스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크산티페의 일화를 소개한다.

소크라테스의 집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 왔다. 항상 가르침을 받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처는 늘 이 일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투정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집을 찾아왔다. 밤늦은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늦은 시간에 손님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하였다. 제자들과 소크라테스는 쥐 죽은 듯이 듣기만 하였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크산티페는 성이 덜 풀렸는지 소리소리 지른 뒤 그릇에 물을 담아 소크라레스의 얼굴에 부어 버렸다.

한편 악처덕분에 소크라테스는 많은 곳을 방랑하며 사색에 열중하였다는 설도 있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대주교 궁중악단의 비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이던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3남 4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해 천재적 재능을 보였던 모차르트는 이미 5세 때 소곡(小曲)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함께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음악 생활을 하였다. 1782년에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 알로이지아 웨버의 누이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하였다. 그는 '피가로의 결혼(1786)', 돈 조반니(1787)', '마적(魔笛, 1791)'등 여러 곡을 작곡하였고, 교향곡 분야에서도 여러 곡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차츰 아버지와의 불화가 생겼고 낭비벽과 사생활 문란 등으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등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다. 1791년 건강까지 악화됨으로써 그는 '레퀴엠'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12월 5일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차르트의 장례는 다음날 거행되었는데, 최후까지 유해를 따라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유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부인 콘스탄체나 조문객들이 묘지까지 따라가지 않은 데 대하여는 악천후 때문이었다는 설과, 콘스탄체가 충격으로 실성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 가난한 음악가의 삶에서는 양처보다 악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모차르트는 빚을 지고 살았지만 콘스탄체에게는 애정이 담긴 편지를 항상 썼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악처는 남편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⑦

느티나무

▣ 靑南 權寧漢(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금년부터는 피서 양상이 몇 해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이름난 관광지에 물밀듯 몰려들던 피서객들이, 금년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끼리 몇 집씩 모여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호젓한 산기슭이나 호숫가 또는 계곡으로 가서 조용히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여름 반변천 상류에 있는 어느 마을에 볼일이 있어서 간 일이 있었는데그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는 멀리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펴놓고 즐겁게 노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의 수종은 대부분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입니다. 잎은 어긋나고 갸름한데 3~12cm 정도로 작은 잎이 나무 전체를 꽉 덮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키는 20m 정도까지 크는 거목도 있고 둘레는 2~3m 정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5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녹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10월경에 익는데 모두 녹색이어서 주의해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이유는 여러 장의 잎이 겹겹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천막 등으로 한번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천막은 상하로 바람이 통할 수 없으나, 나무의 그늘은, 그늘을 짙게 만들어 주면서도 상하는 물론이고 동서 팔방으로 바람이 잘 통하니 한량없이 시원합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이 시원하다고 하나 자연의 바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느티나무는 규목(槻木)이라고도 하며, 나무의 결이 고와서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목재입니다. 옛날에는 불상도 느티나무로 만들었고, 부잣집의 기둥, 가구 등에 모두 이 느티나무를 썼습니다.

요즈음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뿌리로 만든 큰 탁자는 느티나무 뿌리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주도 성읍 마을 입구에는 1000년이나 되는 느티가 있으며 100년 이상된 느티는 우리나라 도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옛날 강원도 어느 땅에 동서로 통하는 길을 끼고 있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손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손들이 모두 쉬어서 가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동에서 서로 가는 노스님과 서에서 동으로 가는 노스님이 우연히 이마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온 스님이 물었습니다.

"가시는 길입니까?""아닙니다."

"그럼 쉬시는 것이군요?""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누더니 두 스님은 길가에 나란히 앉아서 껄껄 웃으며 땀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에서 온 스님이 물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까?""아닙니다.""가깝습니까?""아닙니다.""그럼 가깝지도 멀지도 않군요?""그렇습니다.""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 마주보며 또 껄껄 웃으며 서로 짊어지고 온 바랑에서 나뭇가지를 꺼내서 서로 한 개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에서 온 스님이, "그 나뭇가지는 우리가 만난 기념으로 이 자리에 꽂아 놓고 가기로 합시다.""예, 그렇게 합시다."

두 스님은 또 한바탕 크게 껄껄 웃으며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고 서로 다른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 역사기행

삼전도(三田渡)에 세워진 대청황공덕비(大淸皇功德碑) 현장을 찾아서②

▣ 향촌 권오창(본원 자문위원)

그리고 청군사와 결전 중 중과부족으로 원병을 요청하였으나 김자점의 방해로 원병이 오지 아니하여 패하였다. 그리하여 명과 내통하여 청과 대항하였으나 또한 실패하였다. 그 후 임경업 장군은 명(明)으로 갔으나 남경(南京)에서 청의 군사에게 잡혀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기도 전에 김자점의 모함으로 살해당하고 만다.

조선에서는 인조(仁祖)의 뒤를 이은 효종(孝宗-봉림대군)은 심양에서 겪은 고초와 굴욕과 분노를 삭히면서 오로지 청(淸)을 치겠다는 북벌계획을 다진다. 그러나 대부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또한 당쟁과 국내정치의 상황도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지 10년 만에 승하하자 북벌계획은 중단되고 만다. 조선에서는 매년 청에 사절을 보내고 공물을 바쳤다. 뿐만 아니라 1654년(효종 5년)과 1658년(효종 9년)에 걸쳐 청(淸)이 러시아를 정벌할 때에 원병을 보내기도 하였다.

우리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의 정묘호란(丁卯胡亂)과 그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묘호란은 1627년(인조 5년) 후금(後金)의 장군 패록과 아민의 3만명 군사가 1월14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침입함으로써 조선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후금은 뒤에 1636년 청(淸)으로 국호를 바꾼다.

후금의 태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조선침략의 7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조선은 일부 만주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것과 명(明)의 장군 모문룡(毛文龍)을 잡아서 보낼 것 그리고 명(明)을 치기 위한 원군 3만명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후금의 속셈은 조선의 향명배금(向明排金) 정책에 대한 배후의 우려를 불식 제거하기 위함이며 명(明)의 장군 모문룡이 평안도 철산 앞바다 가도섬에 주둔하면서 요동반도의 회복을 노리고 있는 차제에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조선을 쳐서 명(明)을 압박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괄(李适)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 잔당들이 후금으로 들어가서 조선을 칠 것을 조용한 것도 한몫하였다. 또한 후금은 전쟁물자의 부족으로 조선을 쳐서 물자를 확보하려는 원인도 있었다.

후금은 일부 부대가 가도섬의 명(明)군을 치면서 의주 안주 평양을 거쳐 동월 25일 순식간에 황주까지 내려왔다. 조선에서는 화전(和戰) 양론이 분분하던 중에 후금에서도 실리를 취하여 강화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양국은 화약(和約)이 성립되었다. 그 내용은 ①조선은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 ②화약에 의하여 군사를 철수할 것 ③양국 군사는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였으나 후금은 이를 어기고 의주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조선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636년 조선이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은 12월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청태종이 조선을 침공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이때의 명(明)의 국내사정도 살펴보자. 명의 처지는 청의 공격과 더불어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가렴주구에 시달려 도탄에 빠졌다. 반란군을 이끌던 이자성은 1644년 서안을 점령한 뒤에 이를 서경으로 개칭하고 국호를 대순(大順)이라 하였고 45일간의 황제자리에 올랐다. 동년 4월25일 자금성이 함락되고 명의 숭정제는 처첩과 6살의 딸을 죽이고 34세의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다. 이로써 명(明)은 16대 277년 만에 망하였다.

여기에 중요한 역사적인 숨은 사실이 있다. 명(明)의 주력부대를 이끌던 오삼계가 산해관에서 유리한 방어를 하고 있었다. 청은 산해관을 돌파하지 못하면 명을 치명적으로 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삼계는 산해관에서 이자성에게 항복을 하려고 할 무렵 이자성의 부하들은 오삼계의 아버지와 그의 애첩 진원원(陳圓圓)을 붙잡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삼계는 이자성을 치기 위하여 청에 항복하고 청의 주력부대와 함께 이자성을 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돌변하였다. 이때에 청의 군사들은 이자성과 오삼계의 군사들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이자성은 영평까지 패주하고 1645년 호북의 통산 근처에서 농민들에게 피살당하였고 오삼계는 병사하였다. 드디어 청의 군사는 북경에 입성하게 된다. 오삼계가 이자성에게 반기를 들지 아니하였다면 역사의 흐름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王位 後繼者 鍛鍊과 公式化 過程
王子의 成均館 入學式

▣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貞澤

조선의 왕자가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왕세자 채봉冊封 성균관 입학入學, 성인식인 관례(冠禮), 혼인의식인 가례(嘉禮), 통치 수습과정인 대리청정(代理聽政)과 조참(朝參)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은 유교정치 사상에 기초하여 국가통치의 권위를 창출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조선의 국왕으로서 자신의 대를 이를 왕세자와 왕세손을 왕족의 정통임을 알리고 국가 통치의 명분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후계자공인 과정이다. 조선시대의 왕자들은 대부분 10세 전후에 책봉을 하였는데 그중 가장 일찍 채봉 된 왕세자는 영조 때 2세에 책봉 된 장헌세자(莊獻世子)이며 그 다음에 3세에 책봉된 경종이다. 이와 반대로 늦은 나이에 책봉된 왕세자는 태종과 영조로서 각각 34세와 28세에 책봉되었다. 대부분의 조선 왕세자들은 책봉에 전후하여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입학식이란 왕세자가 성균관을 방문하여 문묘에 경건한 술잔을 올리는 참배를 한 후 명륜당에서 성균관박사에게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성균관 입학식을 처음 거행한 왕자는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다. 1403년(태종3) 봄날의 10세의 양녕대군은 성균관 대성전에 참배하여 헌작을 하고 성균관박사에게 예물을 올려 스승으로서의 예를 올렸다. 다만 왕세자 책봉이 되기 전 한해 전이어서 왕세자로서의 의전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후 왕세자로서 입학식을 올린 이는 문종이다. 문종은 책봉이 된 당해(1421년) 12월에 입학식을 치렀다. 그의 나이는 8세였다. 문종 文宗도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을 대동하고 문묘에 헌작하고 스승이 된 성균관박사에게 예물을 올리고 소학을 몇 시간동안 배우고 환궁하였다. 이때 소학小學을 배우는 이유는 당시8세부터 소학을 배우고 15세에 이르면 대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승이 될 성균관박사에게 예물을 올리는 것은 공부자께서도 이른바가 있는 스승의 대한 예의 속수지례(束修之禮)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학식은 단 한차례 끝나는 것으로서 왕세자가 성균관 제생들처럼 매일 성균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왕세자가 책봉이 된 후 대성전 공부자 신위 앞에서 예를 올리고 성균관박사에게 무릎을 꿇고 학문을 배우는 모습을 세상에 공표함으로써 왕세자가 유교문화에 수호자이며 유학자임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더라도 성균관박사 보다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몇 시간동안 수업을 받는 것은 왕세자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왕세자의 입학식은 유학(儒學)을 국가(國家)의 통치이념(統治理念)으로 삼는 조선의 왕세자로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의식이다. 왕세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연장자에 대한 오륜(五倫)의식을 모범적으로 함양해야 했다. 입학식장인 대성전에는 왕세자의 제관(祭官)들 이외에는 수행원(隨行員)이나 고관대작(高官大爵)들 그 누구도 입장할 수 없다. 문묘 출입에 대한 경건함 유지가 매우 까다롭게 실시되었다. 입학식이 거행되는 동안 왕세자는 만세의 스승이신 공부자(孔夫子)의 학덕(學德)을 따르는 유생으로 입장만 있었을 뿐이다. 이 왕세자의 입학식은 조선말기 고종(高宗) 때까지 계속되었다.